



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총기 48년
2019년 12월 01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 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 강남 라00944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3년 제 241호

창종 제 47주년 (총기 48년 창교절) 종령유시문



종령 법공 대종사

오늘은 우리 총지종이 창종된 지 마흔 일곱 돌이 되는 날입니다. 총기 48년 뜻 깊은 창교절을 맞이하여 승단의 모든 스승님과 교도 여러분과 함께 자축을 하고자 합니다.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밀교종단 총지종을 창종하신 것은 이땅에 밀교종흥의 씨를 뿌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대한국불교사의 일대사로서 그 위대한 업적을 오늘 우리들이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종단이 47년간 걸어온 발자취는 과거의 역사이면서 새로운 미래와 발전의 토양이자 자랑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랑분을 극대화하여 더 큰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승단과 교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가짐과 각오를 다지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릇 마음 안에 일체가

있고 일체는 내 마음 자리에 따라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단의 발전은 곧 각자의 마음자리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깊은 신심과 발심을 더욱 배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창교절을 맞는 종도들의 자세이자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종일을 즈음하여 승단과 교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선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은 첫째도 중생제도요, 둘째 또한 중생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일은 곧 종단 발전을 가져오는 큰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세대(五世帶) 제도가 아니라도 한 가정, 한 사람을 제도하겠다는 적극적인 선법(善法)의 자세를 견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자기 수행에 전념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자기수행이 만법의 시작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참회하는 자세와 흐트러짐이 없는 계행으로 스스로 강건하게 가다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뜻 깊은 창교절에 종조 원정 대성사의 창종 정신을 되새기고, 초발심의 자세와 정진의 환희심으로 회향합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신력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총기 48년 12월 24일 종령 법공 합장

“초심으로 돌아보다.” 스승 심화교육 실시 11월 20일부터 사흘간의 학습과 정진, 열띤 토론



스승심화교육이 실시되는 가운데 교육 마지막 날인 11월23일 새벽 5시 반, 서원당에서 새벽 정승을 마친 스승들이 아자관법 실습을 하고 있다.

종단 하반기 스승 심화교육이 지난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중앙교육원(원장: 화령정사) 주관으로 총지종 통리원과 본산 총지사에서 실시되었다. 봄과 가을 두 차례 강공을 통해 종단 교리에 대한 강론을 해오고 있는 종단 스승들은 이번 심화교육을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정진하고 교화한다는 각오로 임했다.

이번 하반기 심화교육은 종령 법공 예하의 ‘스승의 자세’에 대한 강론과 총지종의 주요 수행법인 아자관 등 관법의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되었다. 법공 예하는 초발심자경문을 통해 스승의 자세를 초심으로 돌아보고, 교화의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지 함께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신도들의 시주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법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 등을 다양한 방편을 들어 설명했다. 법공 예하는 “반야는 지혜다. 지혜를 얻는데 음식이 지혜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계를 넘어 초월적 경계에 들어가면 먹는 음식이 반야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파하고, ‘무애’라는 문자만을 따라 ‘막행막식(莫行莫食)’으로 도인의 행세를 하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철저한 계율을 강조했다. 교육원장 화령 정사는 총지종의 밀교 관법개요와 주요 수행법인 아자관과 함께 월륜관, 아식관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해 강의하고, 실습을 진행했다. 화령 정사는 “아자관은 대일여래의 상징인 아자를 통해 본불생의 이치를 체득한다는 밀교 수행이며, 특히 범월륜관은 밀교의 여러 가지

비밀 수행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도 심오한 관법”이라 설명했다. 또 이번 심화교육에서는 분과를 △교화연구 △총현, 종법 △총유재산 관리 △불사범으로 나눠 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스승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종단발전과 포교 활성화 그리고 효율적인 종단 운영을 위한 토의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 11월 25일부터 1박 2일간 부산 정각사에서는 신임 스승을 대상으로 종령 법공 예하 특별 교육도 실시 되었다.

‘스승은 마음의 아버지’, 기로스승 관불



기로스승 모임 ‘반야회’가 지난 11월29일부터 청송 일대에서 1박2일 간 관불행사를 가졌다. 종령 법공 예하를 비롯하여 일성혜 전수 등 한자리에 모인 전국 기로스승들은 청송리조트에서 여정을 풀고, 주왕산 대전사를 참배했다.

알림

총기 49년(2020년) 1월(242호)부터 ‘총지종보’가 ‘총지신문’으로 바뀝니다.

총기 24년(1995년) 창간된 ‘총지종보’가 어느덧 241회를 발간하였으며, 역사의 산 증인으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창종 50주년, 창간 25주년을 앞두고, ‘총지종보’를 ‘총지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밀교 홍포의 대표 언론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새로운 제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종단의 기관지 성격에서 벗어나 종단 소식뿐만 아니라 총지교도들을 비롯한 모든 불자와 일반 시민 속에서 새로운 소식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또 불교계 언론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며, 불교 총지종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총기 48년 12월 1일 발행인 인선 합장

중/조/법/어

마음이 씨앗이요, 행위가 ‘연’이 되어 모든 ‘과’가 일어난다. 같은 세상에 마음과 행위 따라 화복이 달라진다.

지면안내

5면 <새 연재>도현정사의 생활 속 심리학 6면 <기획>제5회 세계 불교거사 포럼
9면 동해중학교 52주년 개교 기념 11면 수인사, 김장 이웃 나누기

총기 48년 창교절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이 땅에 밀교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의뢰와 수법을 정립한 생활밀교종단 총지종은 총기 48년 창교절을 맞아 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종단 중흥을 위한 대역사에 매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일시

총기 48년(2019) 12월 24일

장소

전국 각 사원 서원당

불교총지종 통리원

“감정적인 소통으로 자비로써 어린이를 돌봐야”

11월 29일, 복지재단 산하 어린이집 교직원 연수 실시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 정사) 산하 어린이집 교직원 연수가 지난 11월 29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통리원 반야실에서 중앙교육원 주관으로 연수회에서 교육원장 화령 정사는 생활불교 종단으로서의 총지종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법’을 주제로 한 시간 반 동안 강의했다. 또 오마니반메후 염송 실습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의 달성에만 집중했지 욕망 자체를 컨트롤함으로써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다음 그 방법의 하나로서 평소 오

마니반메후 염송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을 행복하게 하려면 자신이 행복해야 하기 때문에 연꽃 같은 맑고 아름다운 마음씨로 어린이들을 항상 자비로써 돌볼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 강사로 나선 동국대 이범수 교수는 어린이들과의 정서적 공감대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사람들은 언어에 의해 소통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언어에 의한 전달효과와 불과 7%에 불과하다”며, “말하는 얼굴 표정이나 언어의 톤, 혹은 태도에 의해 소통하는 부분이 무려 93%나 되기 때문에 상대와의 원활한 소통은 먼저 정서적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를 상대할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린이들과의 눈을 맞추고 그들의 표현 의사를 공감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수는 강의 후 종조기념관에서 참배를 올리고, 서원당에서 수료장 수여식과 기념촬영으로 마무리 되었다.

국제학술대회에서 불교총지종 소개

화령 정사, 종단 정통성, 창종 이념 발표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에서 주최한 국제 학술대회에서 불교총지종이 소개되었다. 지난 11월 4일 서강대에서는 ‘동아시아의 현대종교운동(Modern Religious Movements in East Asia)’ 주제로 국제종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참여한 교육원장 화령 정사(철학박사)는 ‘불교총지종의 위상과 역할(The Status and Role of Buddhist Chongji Order in Korean Buddhism)’ 주제로 40여 분 동안 국제 종교관계 참가자들에게 총지종의 역사와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불교의 현대화에 선구자의 역할을 했던 총지종의 창종 이념을 소개하고 밀교 종단으로서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총지종의 노력에 대해 발표, 참여한 외국 종교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교육원장 화령 정사(철학박사)

특히 총지종이 운영하는 보디미트라 ILBF(국제재가불교지도자포럼)의 재가 불교운동에 대해 기독교의 평신도 운동과 비교하며, 현대 한국불교에서 총지종이 전개하는 운동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불교방송 새 사장에 이선재 전 KBS 본부장

제108차 이사회서 결정, 20표 중 19표 획득

불교방송 이사회(이사장: 종하 스님)는 11월 29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108차 이사회를 열어 불교방송 제10대 사장에 이선재 전 KBS 보도본부장을 선출했다. 통리원장 인선정사를 비롯한 재적이사 21명 중 20명이 동참 가운데 최종 후보인 이선재 전 KBS 보도본부장과 김종천 불교방송 경영기획국장을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

이선재 후보는 20표 중 19표를 얻었다. 이선재 불교방송 제10대 사장은 성공관대 정치학과 졸업하고, 한

양대에서 언론학 석사를 받았다. 1986년 KBS 보도국 기자로 입사해 정치외교부장, 워싱턴 특파원, 보도국장, 취재주간 등을 지냈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과 ㈜KBS미디어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 산학협력교수 및 청주대 객원교수를 맡고 있다.

한국 참언론인 대상 등을 수상했다. 불교방송은 그동안 신임 사장의 공식으로 이사장 종하 스님의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이선재 신임 사

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4년이며, 취임식은 12월 중 가질 예정이다. 또 이사회는 이날 선출한 제10대 사장을 당원직 이사로 선출했다.

이사회는 사장 선출에 앞서 전자 이사회 결의사항을 확인하고, 새 감사에 김문석(삼덕회계법인 회계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불교방송 이선재 사장

백월사 혜광 정사 편

한국불교에서의 총지종의 위상과 역할

불교총지종의 원정 대상사는 뛰어난 독창성으로 한국밀교 종단의 교리와 조직 체계면에서의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밀교의 전통적인 맥락은 끊어지고 총본한 밀교 자료도 없던 시절에 상당한 밀교적 체계를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분의 천재성과 독창성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종단들에 앞서 종단을 재단법인화하고 재가불교를 표방한 것은 현대불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도였다.

다른 종단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시절에 총지종은 다른 종단들에 앞서 사원을 도심 가운데에 세우고 편의보발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대승불교운동에 앞장 선 것은 한국불교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것이다.

총지종의 초기에는 이런 모습들이 신선하게 대중들에게 다가갔지만 출가승단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자 이런 모습이 도리어 총지종의 핸디캡이 되었다. 생활불교운동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불교에 대해 가지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총

지종에서는 보디미트라 ILBF(보디미트라 국제재가불교포럼)를 창설하여 생활불교의 이념을 확산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러 나라의 재가불자들과 국제적인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 전통 사찰이 부족한 유럽의 불교들도 앞으로는 출가승 위주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생활 가운데서 불교를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생활불교를 주창하며 모든 허례허식을 배제하고 자신의 마음을 항상 잘 살피며 생활 가운데서 불법을 실천하며 모든 생활을 불교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총지종의 정신은 미래의 한국 불교에 지침이 되리라 본다.

앞으로의 불교는 붓다의 말씀과 같이 ‘자신을 의지처로 하고 법을 의지처로 한다’는 말씀처럼 출가승 위주가 아니라 불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가불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재가불자들이 진리에 눈을 뜨고 바른 길로 나아갈 때 불교는 영원히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개척자적인 역할을 불교총지종이 하고 있다.

(주제발표 요약)

내 마음의 등불

육바라밀 중에 지혜가 다섯 바라밀의 어머니가 됨을 설함

이때 박가범 부처님이 자씨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할지이다. 내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모든 보살이 보시바라밀다 내지 정려바라밀다를 수행하는 것은 모두 반야바라밀다가 어머니(母體)가 되어 일어난 것으로 그 근본이 되니라. 비유하면 눈 등의 오근(五根)이 오식(五識)을 낳아서 오진(五塵)을 취하는 등의 작용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하나가 모두 식(識)과 마음을 근본으로 삼으니, 그 마음을 떠나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것이니라. 보살마하살이 앞의 다섯 가지 바라밀다를 닦고 익히는 데는 항상 지혜를 그 모체로 삼을지이다. 만약 지혜를 여의면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니라.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 제 9권 중, 제10 반야바라밀다품 중〉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백월사 혜광 정사는 다음 주자로 자석사 주교 도우 정사를 지목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송년특집기획

육바라밀로 바라본 총기 48년도 불교총지종

육바라밀은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할 여섯 가지의 수행을 말한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리고 반야바라밀이다. 종단은 올 한 해 제 19대 집행부 출범을 시작으로 불교총지종의 제도약을 위한 중단 정비와 현공가지불사, 교화 사업 등에 정진해왔다.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의 비밀의 세계로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총기 48년도를 돌아보며 주요 뉴스를 육바라밀로 구성해 보았다. <편집자 주>



일체 탐욕을 떠나 희생과 봉사, 헌신으로 베푸는 마음 **보시**

'경로 효친 사상의 실현'과 '교도 평생 복지 구현'이라는 실천에 더욱 바짝 다가섰다. 제13회 불교총지종 경로법회가 경북 청송에서 9월 25일부터 1박 2일간 개최됐다.



계율을 지켜 악업을 멀하고 몸과 마음의 청정을 얻다 **지계**

새 금가사 수여식이 지난 4월 16일 총지사에서 봉행되었다. 가사는 삼보에 귀의한 모든 중생들의 신앙과 수행을 이끄는 위이며, 경외하는 자체가 이미 수행이다.



악한 행동을 참고 이기며 오로지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욕**

제 19대 총리원장으로 인선 정사가 선임되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수고로움을 딛고 새해에도 한발 앞서 열 사부대중의 손발이 되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선행과 바라밀을 실천하며 나아감 **정진**

부산 도심 밀교 홍보와 교화사업의 대장정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법성사가 1년여 만에 신축공사를 마치고 12월 준공, 서원당 현공 가지불사를 앞두고 있다.



번뇌와 망상을 버리고, 맑고 티 없는 마음으로 삼매에 **선정**

아미타부처님께서 오시길 서원하며, 지난 5월 24일 정각사 '덕락전 아미타삼존불 현공가지' 불사를 봉행했다. 살아서 '이고득락', 죽어서 '왕생득락'의 길을 열었다.



부처님 법과 자비로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는 지혜 **반야**

총리원 인선 정사가 지난 7월 26일 한국불교지도자 대표로 청와대에 초청되어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을 나눴다. 오로지 지혜로서 호국안민 국태민안을 설하다.

칼럼 **지혜의 눈**

동양 종교, 생성과 소멸 반복의 과정에 주목

불교의 세계관 '연기론', 현대 갈등의 치유책

성공회대 신영복 선생은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재직중에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년간의 옥살이를 한 이후 1988년 출옥하고 펴낸 책이 옥중서간집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입니다.

27세부터 47세까지, 새파란 젊은 시절부터 장년의 나이까지 그는 무문관에서 장좌불와로 참선하는 선승처럼 끝없는 사색과 자기 성찰로 채워 그 결과물로 여러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강의'라는 책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20대에 도율 김용옥 선생님의 '여자인 무엇인가' 등을 통해 동양 고전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었다면, 신영복 선생님의 '강의'는 본인의 삶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묵직하게 실려 있는 것으로 또 다른 감동을 느꼈습니다. 문자를 통한 만남이었지만 한문이란 장벽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웠고 낯은 것이라 편견으로 외면했던 동양 고전이 새롭게 보이는 문을 열어준 분 들입니다.

신영복 선생의 삶에서 감옥은 또 다른 스승을 만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교촌 이구영 선생님. 충북 제천의 반가(班家)출신으로 일제강점기 사회주의자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는 친일 행사에 체포되었습니다. 해방 후 북한으로 월북한 뒤에 남한에 남파되었다가 우연히 길 위에서 일제 때 자신을 체포한 그 행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대한민국의 형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이구영 선생을 다시 체포하게 되죠. 한번은 일제의 앞잡이 형사로, 또 한 번은 대한민국의 형사로 동일한 인물에 의해 두 번의 감옥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민낯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구영 선생은 한학에 조예가 깊었고, 마침 같은 곳에 있었던 인연으로 감옥에서 신영복 선생은 이구영 선생의 지도로 동양의 고전을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그 공부는 세상사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경전의 내용에 침잠하여 이루어진 참 공부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감옥은 그에게 최상의 공부방이었던 셈이었죠. 비유하자면 17년의 유배생활이 없이 다산의 '여유당전서'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동양적 사고는 현실주의적이라고 합니다. 고답적인 형이상학적 성격이 서양에 비해 적은 것은 분명합니다. 서양 문명이 아마 초월적 존재

를 전제하고 사상이 전개된 탓이 클 것입니다. 따라서 서양문명이 종교와 과학의 길항(拮抗) 관계로 전개되었다면, 그래서 종교가 과학을 억압하기도 하고 과학이 신학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면, 동양에서 종교는 자연이었고 따라서 과학과 종교는 그닥 대립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현실주의적이었던 탓에 눈앞에 펼쳐진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주목하였고 수많은 존재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종교학자들이 처음 동양 종교에 접하고 매우 당혹해했습니다. 거기에는 서양의 신과 같은 절대적이고 초월적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도 매우 훌륭하게 종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상을 본 까닭이었습니다. 동양의 종교는 궁극의 존재에 매달리기 보다는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과정에 주목한 것이죠.

서양 문명의 폐해를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IS라는 이슬람국가라는 온전한 서구의 침략에서 비롯된 결과물입니다. 천여 년에 걸친 기독교와 이슬람 두 문명의 피비린내 나는 다툼이 근본적으로 두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종교의 공존은 각각의 종교적 도그마에서 벗어날 때 가능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유대교를 포함한 세 종교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관계라는 점입니다. 구약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래서 끊임없는 대립과 투쟁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또한 기독교적 세계관의 전통위에 세워진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서유럽과 미국과 대립하던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냉전체제는 무너졌지만, 기독교 문명권과 이슬람 문명권이 새로운 대립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치유책의 하나로 저는 동양적 사유방식이 충실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불교의 상의상존적 세계관인 연기론이나 도교의 상선약수(上善若水)와 같은 세계관이 이러한 갈등의 치유책이 아닐까요? 신영복 선생님은 서구문명의 산물인 사회주의라는 사상을 갖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동양 고전에 대한 공부로 어쩌면 두 사조의 융합을 이루어낸 것은 아닌지 '강의'를 읽고 나서 떠오른 저의 단상입니다.

<칼럼리스트 김태원>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가정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가정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가정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0,000



찔보리수 108염주

₩ 40,000



법등정사 총지법장

總持法藏

내 안에 할 말이 없어질 때

"세간의 도사가 계경(契經)에서 설한 바와 같이, 능히 크게 이로움을 손상케 하는 것은 성내는 마음보다 더 한 것은 없다. 한 생각의 성냄을 인연하여 구지광경에 닦은 선(善)을 모두 태워 없앤다" (대일경, 불교총전 p.433-5)

홍도비구는 금강산 돈도암(頓道庵)에서 수십 년 동안 수행하여 곧 성불할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때 병이 들더니 오랫동안 병석에 누웠다가 너무 답답하고 갑갑해서 어느 날 밖으로 나와 나무 아래에 자리를 펴고 잠깐 누워 있었는데 마침 세찬 바람이 불어와 먼지를 뒤집어쓰게 되었다. 눈에는 흙먼지가 들어가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고 벗어놓

하물며 일개 수행자가 업보 앞에서 '뉘아도 소용없다'하며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일념의 진심(眞心) 인연으로 구지광경동안 닦은바 선(善)을 모두 태워 없앤다. 그러므로 이 무익한 근본을 멀리 버리고 여의어야 한다.'고 했다.(대일경 제7권 중에서)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 오직 수행을 통한 지혜와 깨달음만이 진에심(眞愍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을. 알렉산더대왕이 어느 날 길거리에 있는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왔다.

대왕은 직접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알렉산더대왕이다. 너는 누구냐?"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말했다. "나는 디오게네스다." 대왕이 말

지혜와 깨달음만이 진에심(眞愍心)에 자유로워 정업(定業)은 다만 때를 기다리며 숨어있을 뿐

은 웃은 바람에 어디론가 날려가 버렸다. 그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삼세제불도 소용없고 팔부신장도 믿을 것이 못되는구나. 나와 같이 부지런히 수행하는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바람까지 불어 나를 괴롭히니 이래가지고 불교에 무슨 영험이 있다고 할 것인가!" 하며 부처님을 비방하고 팔부신장을 원망하였다. 그날 밤 토지신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네가 중노릇하며 공부를 하였으나 헛수고를 하였구나.

수행자는 자비로 집을 삼고 인내로 옷을 삼으라 하였는데 그까짓 병을 앓고 바람이 불어 불편하였다고 진심(眞心)을 일으키니 그레가지고 어찌 공부했다고 할 것이냐? 부처님께서도 정업(定業)은 면치 못하고 과보를 받으셨는데 네까짓 초심 비구라. 네가 병이 난 것은 너의 업보요, 바람을 일으킨 것은 도량신이 네 마음을 시험해보려고 한 것인데 그것을 잘 참지 못하고 화내고 짜증내니 그게 무슨 짓이란 말이냐!"고 했다. 성불을 목전에 두었던 홍도비구는 이런 진심인연으로 죽은 후 백의 과보를 받았다

내 말을 안들 때 화내는 것이 중생이다. 내 뜻대로 안되거나 나를 힘들게 할 때 화가 일어나게 된다. 화 날때 화내지 않기가 어렵지만 그때 안인(安忍)한 공덕은 즉신성불의 자량(資糧)이 된다. 많이 닦아 깨달음을 얻은 성인(聖人)도 정업(定業)은 피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했다. "뭐 필요한 것이 있는가? 있으면 말해봐라."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햇볕을 가리지 말고 비켜줘." 상대가 대왕인줄 알았고 한 순간에 자신의 목이 날아 갈 수도 있었다. 그러자 대왕을 호위하는 측근들이 즉시 분노하는 척 했다.

대왕이 분노한 측근들을 만류하며 말했다. "내가 알렉산더대왕이 아니라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세상을 '다 가진 자가 자신의 집과 재산 등 모든 소유물을 '다 버린 자'를 부러워했다. 아무것도 내려놓을 수 없는 정복자에게 다 내려놓은 철학자가 부러웠다. 대왕은 그대로 돌아갔고 거리의 철학자는 계속해서 일광욕을 즐겼다. 멋지다. 두 사람 다. 상(相)이 높을수록 화낼 일이 많아지고 화가 날 때 인욕하기가 쉽지 않지만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안인(安忍)이다. 우리는 왜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고 분노하는가! 중생은 할 말이 너무 많아 인욕을 못한다.

할 말이 목까지 차면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니 내 안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질 때 안인(安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도록 닦고 지혜를 밝혀 깨달음을 얻어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고 주어진 업보에 수순하며 안인하게 될 것이다. '겨짜지 한 알 속에 수미산이 들어있다.' 정업(定業)은 다만 때를 기다리며 숨어있을 뿐이다. 정업난면(定業難免)이다.

내 안의 숨을 고른 지혜와 안인의 공덕자량을 닦아 금생에 즉신성불 하십시오. 성도합시다!



심보 이야기 2

법선정사

인식된 것은 진짜일까 거짓일까?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며 대상을 인식하고, 경험으로 축적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물을 객관화 시키고 객관화 시킨 사실들은 진실로 받아들인다.

물(水)이 네가지로 인식되는 일수사견(一水四見)과 원효스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대상이 객관자(심보)에 의해 다양하게 인식됨을 보았다. 이번에는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되어진 사실은 진짜일까? 거짓일까? 다양하게 인식되어지는 사실들이 오류일 수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두려운 마음으로 산길이나 시골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나타나 흰비백산하여 집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날 다시 그 자리에 갔더니 나무줄기에 하얀 천이 걸려 귀신으로 착각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 길가에 새끼줄을 백으로 착각하거나 백주대모에 편안한 마음으로 길을 가고 있는데 정말 백이 나타났더라도 그것을 새끼줄로 인식한 경험도 있다.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의 마음과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극단적인 인식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대상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곧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며, 하얀 천을 보고 귀신으로 착각하거나 새끼줄을 보고 백으로 착각한 사람은 겁을 먹고 황급히 도망치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으며, 백을 보고 새끼줄로 잘못 판단한 사람은 새끼줄을 잡는다고 했지만 결국 백에게 물리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우리들의 인식이 곧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누구도 예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식작용에 의해서 행위가 결정되며, 이 행위를 통하여 행복과 불행이 성립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수없이 부딪히는 사물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대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삶을 영위하고 행동하고 있는 가라는 사실을 한번쯤 되돌아 볼 수 있게 하며,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불교에서는 인식주관에 따라서 변화하는 허망한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적 수양과 지적 성찰을 통해서 대상을

을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수행자의 입장에서 중요시 한다.

흔히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하루의 일정에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것저것 보이는 그대로가 실제의 사실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사실에 놀라기도 하고 슬퍼하거나 즐거워하기도 하는 느낌을 겪으며 살아간다. 과연 경험이 진짜와 가짜를 관별하는 믿음만한 수단일 수 있을까? 실제로는 경험에 의존하여 대상을 관별하는 우리의 습성이 오히려 우리를 계속 착각 속에 빠뜨린다고 말할 수는 없을까?

우리가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은 먼저 자신의 생각을 갖고 대상을 보게 되면,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견해에 입각해서 대상을 보게 되며, 자신에게 보여 지는 것은 그 대상의 본래 모습과 다르게 왜곡된다. 이처럼 인식하는 사람은 자신이 대상을 있는 '있는 그대로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본래는 자신의 마음에 의해서 대상을 '분별해서 알게 되어진 것'으로 의심해 볼 일이다.



연명의료 19

법상정사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은 필수다

죽음은 신의 영역일까, 아니면 자기 결정될 수 있을까. 지난 해 전 구분부 LG 회장이 연명에 들었다. 1년간의 투병 과정에서 "연명 치료는 하지 않겠다."는 고인의 뜻을 가족들이 따랐다고 한다. 역시 지난 해 95세로 타계한 윤보희 전 이화여대 음악과 교수의 이별 또한 존엄했다. 연명 치료를 사양하고 병원 문을 스스로 나온 그녀는 퇴원 당일 미용실에 들렀다고 한다.

스스로 식사량을 줄였고 오래지 않아 삶과 이별했다. 고인이 남긴 유언은 세 가지. '부유금 받지 마라', '염(殮)할 때 신체를 끈으로 묶지 마라', '얼굴에는 보자기 덮지 마라' 스스로 선택한 존엄한 퇴장이었다. 인간은 스스로의 죽음에 대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 걸까. 자살은? 안락사는? 연명의료 중지는? 당연히 자살은 있을 수 없다. 안락사도 현행법상 용서되지 않는다.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

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렇듯 생명의 인위적 단축을 전제하기에 허용될 수 없다. 물론 다른 입법례도 있다. 2018년 5월 10일, 호주의 최고령 과학자였던 104세 데이비드 구달 박사는 안락사가 허용된 스위스를 찾아가 약물 주사를 맞고 생을 마감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선택할 음악은 베토벤 교향곡 9번의 마지막 부분(환희의 송가)일 것이다. 나의 선택이 안락사에 대한 자유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법이 허용하는 부분은 연명의료의 포기나 중지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긴 이름의 법이 하나 있다.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선택이 가능해진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은 자치 위원할 수 있어 요건이 까다롭다.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째, 건강할 때 미리 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둘째, 말기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 셋째,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 넷째,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및 의사 등의 확인 등의 절차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한다.

상속설계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자기 결정이다. 따라서 연명의료에 대한 사전결정은 필수다.

初發心自警言

초발심자경문

최명 올림

불교총지종 법장원

나를 돌아보는 수행인의 길잡이!

불교수행의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불자들의 필독서

초발심자경문

·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 ·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 자경문[自警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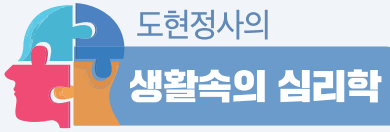
"<초발심자경문>은 불교수행의 길에 들어선 초심자뿐만 아니라 입문한 지 오래된 전문 수행자도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머릿말 중에서-

✓쉬운 번역!
✓간결한 표현!
✓읽기 쉬운 원문!

화령번역 / 불교총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 12,000원 / 169쪽

법보시 받습니다. 법보시가(7000원 / 10권이상)
문의전화 | 02-508-8933



사소한 짜증, 거대한 스트레스로 키우지 말라

몇 년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중 1위가 스트레스(stress)였다. 보도가 있었다. 이처럼 스트레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스트레스라는 말은 원래 19세기 물리학 영역에서 '팽팽히 조인다.'라는 뜻의 'stringer' 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한다. 의학영역에서는 20세기에 이르러 오스트리아 생리학자 한스 셀리에(Hans Selye)가 '정신적 육체적 균형 그 생각을 그냥 흘려 버린다면 곧 생각은 다른 관심 사항으로 옮겨 갈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얼만큼 거리를 두고 경계해야 할 것인지 걱정을 할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하다보면 짜증이 나고 곧 화가 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전개는 대부분의 상황에 적용된다. 치약을 짜는 사소한 습관 같은 문제가 결

스트레스는 집착할수록 더나는 상처 물리학 영역에서 팽팽히 조인다는 뜻

과 안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자극에 대하여 자신이 있던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변화에 저항하는 반응'으로 발전시켜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는 스트레스 요인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마지막 단계인 탈진반응에 빠지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론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리가 가지는 생각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물과 정원 혹은 햇볕과 정원의 관계와 같이 물과 햇볕이 정원을 풍성하게 하는 것과 같이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거나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의 관심을 갖는 대상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난다.

어떤 대상을 보면서 성가시다고 여기면 그에 대해 너무 집착하게 되고 사소한 짜증이 거대한 스트레스로 자라날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문제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은 그 사소한 문제를 자신의 내부에서 키웠기 때문이다. 가령, 자신이 "난 그 사람이 그다지 좋은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별 의미 없이 곧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라고 무시해 버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집중해서 그 생각을 키워 나가는 것이다.

현생활을 파탄으로 이끈 이유로 작용했다는 이야기는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치약을 짜는 습관은 남녀의 결혼생활을 파탄으로 이끌 만큼 큰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결혼생활을 파탄으로 이끈 근본적인 이유는 그 문제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치약을 왜 꼭 저런 식으로 짜까?" 이런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과거의 일들을 들추고 감정을 악화 시킨다.

"언제 봐도 저 사람은 일에 앞뒤가 없어"

"날 괴롭히려려고 저러는 게 틀림없어"

"우리가 만난 뒤로 저 사람은 늘 저랬어, 어떻게 된 게 내 신경을 박박 긁는 일만 한 단 말이야"

이러한 생각의 흐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순식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 상처도 치명적이다. 스트레스는 더나기 쉬운 상처와 같다. 그것에 집착하거나 몰두하면 할수록 더나는 상처처럼 스트레스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무한하게 확장되고 악화되는 것이다.

이처럼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과정을 잘 알게 되면 스트레스 받는 것에 대한 현명한 대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연법과 인과법을 깨쳐야



흥국사 지정정사

부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

불교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인연법과 인과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두가 인연의 소치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이웃사촌 모든 것이 전생부터 인연의 끈을 통해 이생에서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행하면서 인연법을 곱씹어 묵상해가면 참 오묘하고 신기함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와 전생에 악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연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먼저 지심으로 참회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만 탓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괴롭고 힘들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텐데' 하고 내심으로 바라기도 합니다. 세상사 모든 것은 나의 업(業)에 의해 현재의 고통이 만들어지고,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불공하는 목적은 나의 업장(業障)을 소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지심으로 참회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참회하다보면 업장은 부지불식간에 소멸됩니다.

청담스님의 일화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 거사가 조계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대령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현모양처로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너무 너무 아름다워서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부인이 무섭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 결국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한편으로 아름답고 예쁜 부인을 안아보는 것이 소원이 되었습니다.

참회의 108배를 하세요.

타인에게 자신의 사생활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민하다가 청담스님께 용기를 내어 이야기하였습니다. 청담스님께서 "부인과 전생의 악연이 있기 때문이니 부인에게 참회를 해야 합니다. 참회하는 방법으로 49일 동안 부인이 자고 있는 방에

매일 108배를 하세요."라고 비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사는 잘못이 없는데 부인에게 108배를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할까, 말까 매번 방 앞에서 서성이다 그래도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해야지 하고 49일 동안 부인을 향해 108배를 하였습니다. 108배를 하다 보니 자신의 처지가 참 처량하기만 하고, 후회스러워 눈물을 흘리며 108배를 하였습니다.

49일 마지막 날 눈물을 흘리며 108배를 하고 있는데 부인은 분명히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방에서 "이제 됐다, 그만해라"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니 다음날부터 부인에 대한 무서움이 사라지고 아들, 딸, 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바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어떤 인연을 맺는가에 따라 그 결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연을 잘 맺어야 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은 자신과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결과이므로 만나는 사람마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바르게 쓰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연으로 펼쳐지므로

질 뿐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싫은 것이 오면 괴롭고 좋은 것이 오면 즐거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있는 한, 외부에 따라 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인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삼세도 없으므로 마음에서 벗어나면 곧 삼세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따라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삶은 근본적으로 고통이며, 마음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며, 마음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主而生其心),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으로, 허공의 구름이 어떤 곳에도 머무는 바 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난 근본을 돌이켜 보면 머무른 바 없습니다.

인연이 공(空)한 것임을 깨달아야

이 같은 실천을 통하여 마음에 있는 모든 인식이 소멸되면 청정한 마음을 얻게 되고, 그 마음을 통해 진여자성(眞如自性)을 깨달으면 마음마저 벗어나 모든 인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인연법에서 벗어나면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인과

불공의 목적은 업장(業障)을 소멸하기 위함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바르게 최선을 다해야

로 해탈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과 인연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인연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부처님과 불법(佛法)을 만나는 것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여 궁극에는 삼세의 인연을 모두 청산하고 인연법에서 벗어나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은 자신과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만나는 사람마다 지극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바르게 쓰며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면 자신이 지은 업보로 생각하고 아무리 미고 힘들고 원망스러워도 악행을 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삼세의 인연을 모두 청산하고 인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 그 자체도 공(空)함을 깨쳐야 합니다. 마음을 아무리 닦아도 마음은 청정해

(因果)로 얽혀 있고 미래에 어떤 인과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두 알게 됩니다. 즉 내일 만날 사람이 누구이고 왜 만나야 하는지, 어떤 인과가 맺어져 있는 지를 확연히 알게 되므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면서 인연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연 따라 살지만 이미 인연이 공(空)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연에서 벗어나 있으며 아무리 많은 사람과 만나도 더 이상 인연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주가 생겨나고 소멸되는 과정과 만물이 창조되는 시작과 소멸하는 끝을 확연히 알 수 있으며, 우주가 중중무진연기(重重無盡緣起)로 펼쳐짐을 모두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주란 한 눈에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괴로움을 여월 수 있으며 삼세의 인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 자유,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 시절

단향사 이전

총기 23년(1994년) 12월 27일

- 구소재지: 통영시 북신동 3-11 철골조 칼라시트지붕 2층 주택
- 신소재지: 통영시 무전동 979-63 건물 1동 전세 (벽돌조 스라브층 주택 2층 단층 연면적: 188.6m)

밀교개론 저술

총기 27년(1998년) 12월 12일

< 밀교개론 저술 약정서 체결 >

- 저술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
- 저술기간: 1999.11.-2001.12.31

강남 불교 사원 연합회 결성

총기 29년(2000년) 12월 7일

- 장소: 총지중 본원 반야실
- 준비위원회 위원장: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 선출
- 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총지중 지성 총무부장 선출
- 실무: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현묵 선출
- 참석: 강남지역 불교사원 주지 10명

법향사 신축 계약

총기 30년(2001년) 12월 21일

소재지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28-4번지의 9필지

- ▶ 대지면적: 1,219.27m(368.8평)
- ▶ 층수: 지하 1층 지상 2층
- ▶ 연면적: 1,397.96m(422.88평) 지하 1층 지상 2층
- ▶ 공사기간: 총기 30년12월 21일 - 31년11월 30일
- ▶ 시공자: 국토건설(주) 박중학
- ▶ 설계·감리: 원 건축사사무소 유승희

가사 법의 봉대 가지 불사

총기 30년(2001년) 12월 26일 14:00

< 아사리 위촉 >

- ▶ 대아사리: 종령 록정 대중사
- ▶ 교수아사리: 통리원장 해암 종사
- ▶ 갈마아사리(사회자): 총무부장 원송
- ▶ 집공자: 재무부장 지성

디자인 책임자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의생활학부
이기향 교수

말레이시아 화교 '거사림회' 일불제자 큰 잔치 '제 5회 세계 불교 거사 포럼' 한국 대표로 총지중 참가

말레이시아 말라카(Malaysia Melaka)는 '바다 실크 로드'의 주요 경유지였던 도시로 1511년 포르투갈이 말라카를 정복하여 아시아 최초의 유럽 식민지로 삼고 기독교 전파를 위한 기지로 만든 곳이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헌법에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세계인이 모여 불교행사를 연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컬했다.

말라카에서 개최되는 '제 5회 세계 불교 거사 포럼(World Buddhist Kulapati Forum(WBKF), 第五世界居士佛教論壇)'에 유일하게 한국불교 대표로 불교총지중 인선 총리원장, 법장원 수석연구원 자격으로 범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시대의 불교의 역할(Dharma Propagation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주제로 한국을 비롯한 말레이시아, 대만, 미국, 아랍에미리트, 중국, 싱가포르, 인도, 호주, 미얀마에서 초청된 24명의 발제자들의 발표와 질의응답 등으로 리조트(A'Famosa Resort Melaka)에서 50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1박 2일 간 알차게 진행되었다. 한국대표로 화령 정사는 둘째 날인 11월 9일 오전 세션에서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을 닮는다.'는 주제로 중국어로 발표했다. 포럼에서는 통역하는 사람이나 통역기 없이 중국어로 대부분 발표를 하였으며,

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있었다. 말레이시아 대회는 목표가 분명해 보였다. 이 같은 대형 행사를 통해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살아가는 화교들을 재 교화하고, 이를 통해 일불제자로서 자긍심과 연대감을 높였다. 십대부터 고령자까지 거사림회 회원들이 참여하여, 자원봉사가 되어주었으며, 또 포럼 참여자가 되고, 공연단이 되고, 각종 참가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자신들의 행사에 세계 각국에서 모여 부처님 말씀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사실에 환희심이 절로 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내년 한국에서 치러질 '세계 재가 불자대회'가 우리 총지중이 주관하여 시작한 대회가 벌



경 정사, 그리고 주제 발표자로 교육원장 화령 정사가 초청되어, 지난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간 말라카를 방문하게 되었다. 필자는 취재와 내년 종단이 주최하는 '제 10회 세계재가불자 대회' 준비를 위해 행사 참관 겸 동행하게 되었다.

첫날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을 때 우리 종단 초청단을 환영하는 보드가 눈에 들어왔다. 나름 영어를 장작(?)해간 나는 몇 마디 하지도 못하고 중국어 통역자에게 모든 일정을 맡기게 되었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국어를 사용했으며, 이들이 모두 말레이시아 내 중국 화교이며, 말레이시아 화교 재가 불자들의 조직인 '거사림회'가 세계 각 국가의 불교 네트워크와 연대하여 개최하게

영어 발표자는 몇 안 되었다. 이 또한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는데, 이 또한 국적만 다른 대부분의 참가자가 중국인 또는 화교였으며, 하물며 영어 발표자인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박사도 화교인데 다만 중국어를 잘 못한다는 사실이였다. 중국 발표자 국적에 China가 아니라 Mainland China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포럼의 성격에 대해 나름 추측할 수 있었다.

'거사림회'는 말레이시아 화교 내에 불자들을 이어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신경망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 말레이시아 내에 각 연령,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1백여 개가 넘는 조직과 범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인원이 몇 만에 달한다고 전했다. 전적인 회원들의 회비(회사금)로 운영되며, 정기적인 법회와 연대 행사로 소속감을 강화하고 화교 불

씨 열 번째를 맞이한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불교신문 기자로 재직하면서 나름 불교계 먹물이라고 자부해왔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야 불교총지중이 얼마나 멋진 종단 인가를 알아버렸다. 현공가지불사를 비롯해 부처님오신날, 경각합창제, 경묘잔치 등 종단 내 크고 작은 일에 너무나 애종심으로 나서는 스승과 교도들을 만날 때마다 표현하기 힘든 존경의 마음이 늘 내 안에 있었다.

내년 세계불자대회도 다른 나라 불자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사뭇 다르지 않게 '총지중 교세발전 사바하'를 목표로 준비한다면, 이슬람 국가에서 불교의 꽃을 피우는 화교 불자들이 보여준 감동 이상의 모습을 세계인에게 보여줄 수 것이라고 확신한다.

<말레이시아 말라카=박재원 기자>

주제 발표 요약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을 닮는다

화령 정사(보디미트라 ILBF회장/교육원장)

이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한 이래 인류는 끊임 없는 기술발전을 이룩해 왔다. 이는 인간의 끊임 없는 욕망 추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류는 이러한 기술 발전을 이룩하고 그를 통하여 생산력을 확대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류는 생산력의 확대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이외에도 유희 혹은 쾌락을 위하여 부수적인 기술 개발도 아울러 추구해 왔다. 유희 혹은 쾌락을 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방법을 고안하는 것은 다른 중생들에게는 볼 수 없는 인간만의 특징이다.

최근 몇 세기 동안에 인류는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특히 증기기관과 전기의 발전으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의 인류가 누리보지 못했던 생산성 확대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한 마디로 지금까지 인류는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산업혁명 이전의 농경시대보다 행복해 지지도 않았으며 인간들 사이의 다툼은 더욱 심해졌다. 우리의 생활 전반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돌아보면 불과 몇 십년 전과 비교해 보더라도 모든 면에서의 생산이 풍족해지고 생활이 편리해 졌지만 과연 우리는 그러한 생산성과 편리성만큼 생활이 더 풍족해지고 행복해졌던가? 편리한 것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그러한 것을 획득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과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물질문명이 발달한 나라들보다 저개발 국가가 행복도는 오히려 더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것은 인류가 인간의 심성을 무시하고 오직 물질적 욕망의 충족만을 향하여 달려 온 결과이다. 욕망을 충족하려고만 하여서는 그 끝이 없다. 욕망은 욕망을 제어함으로써만 멈출 수 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찰하시고 욕망의 충족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욕망의 제어에 대해 말씀하시므로써 인간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들이 정립되지 않은 지금으로서는 인공지능의 발달이 단기적으로는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물론 처음에는 부작용이 많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부작용들도 다 해결이 될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로봇의 활용에 대해서 한

쪽에서는 풍요로운 사회를 꿈꾸는 반면 한편으로는 인간성 상실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불교적인 마인드가 바탕이 된다면 4차 혁명시대에 인공지능의 역할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하는 불교지도자들의 역할이 크며 특히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인공지능과 마주해야 할 재가불자들의 사회적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기로서 이루어진 이 현실세계를 직시하고 모든 인간들이 서로의 행복을 위해 인공지능의 미래 또한 밝을 것이다. 또한 불교에서는 항상 중도를 이야기해 왔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실체는 공이다.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지 불국 정도로 만들지는 모두 인간의 마음에 달려 있다. 이것은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인공지능 로봇의 출현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지나친 기대도 가질 필요는 없다.

단지 우리 불자들이 할 일은 모든 사람들의 심성을 밝히는 일에 앞장 서는 것뿐이다. 인간의 마음이 밝아지면 인공지능도 거기에 따라 좋은 면에 활용될 것이다. 심지어는 SF 영화에서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는 인간형 AI 로봇이 나오더라도 그것들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닮게 되기 마련이다. 중요도 없고 욕망도 없는 인공지능 로봇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도 있다. 그러한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불자들은 쉼 없이 심신을 수련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불교 지도자들의 변함없는 사명이다.

맛간장 과일식초

Premium Well-being Food

복지기금마련 SALE



맛간장 세트

맛간장/과일식초 보급 할인행사

900ml 맛간장(2병) + 700ml 과일 식초(1병)

27,000

22,000원

(에코박스 포함 가격입니다 / 택배비 별도)

수인사는 매주 무료급식과 매월 4주 일요일에 반찬도시락 나누기를 하고있으며 11월 김장김치 나누기와 할매, 할배 효잔치와 동지팥죽나누기 등의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시 찬조해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맛간장 과일식초

간장/식초

1.8L(1병) 2만원

900ml(1병) 1만원

600ml(1병) 7천원

판매금 20%를 사회복지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무료급식,반찬배달,효잔치,김장나누기 등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비, 실천 이념이 되어야”

인선 통리원장, 제22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학술강연회서 발표

중국 주해 대회(이하 주해 대회)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중국 광둥성 주하이 보타사 천왕전광장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 봉행을 시작으로 주해 대회 개막식에 이어 주요행사도 웨라톤 호텔에서는 ‘불교와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이라는 주제로 학술강연회가 개최됐다. 한국측에서는 전종단을 대표하여, 총지중 통리원장 인선 정사가 ‘불교의 자비를 통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자비는 인류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해독제가 될 수 있으며, 보다 건강한 인류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실천 이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중일 삼국의 불제자들이 진중하게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응시하여, 세계 평화와 인권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이번 주해 대회를 되새기고, 총지중에서 표방하는 자비가 어떤 의미로 인류공동체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발표 내용 전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불교의 자비를 통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불교는 자비의 종교이다. 이러한 핵심 가치는 모든 존재들을 향해 있으며, 인류사에 있어서는 시대와 지역을 관통하는 보편적 실천 이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무자비와 폭력, 전쟁의 역사로 얼룩져 있다. 이는 개인과 개인, 집단 간의 갈등 그리고 환경과의 부조화를 일으키는 인간의 그릇된 욕망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자비심과 그릇된 욕망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인간은 무엇일까? 불교에서는 인간을 불변하거나 고정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심리·물질적 과정으로 설명을 한다. 그것은 과거의 업과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생기고 또 그에 의해 지탱되는 상호 의존적 관계의 흐름이다.

사람은 다섯 가지 무더기 또는 오온(五蘊, pañcakkhandh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물질적인 것이 고 나머지 넷은 심리적인 것이다. 물질(色, rūpa), 느낌(受, vedanā), 인식(想, saññā), 형성력(行, saṅkhāra), 식(識, viññāna)의 다섯이 그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인간은 정신과 물질(名色, nāma-rūpa)의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이란 불변하거나 고정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심리·물질적 과정이다. 즉, 불교는 인간을 과거의 업과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생기고 또 그에 의해 지탱되는 상호 의존적 관계의 흐름인 연기(緣起, paṭic asamuppāda)로 설명한다. 이러한 인간은 인과(因果)로 조건 지어지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공동체의 일부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모든有情物(有情物)들을 일컬으며 때론 자연계 전체를 포괄한다.

공동체 속에서 인간은 신이 창조한 특별한 피조물도 아니며, 동물 등에 대한 ‘지배권’ 혹은 자연에 대한 ‘관리권’을 부여 받은 존재 등도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나친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의 감소, 지구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등으로 인류운명 자체를 위협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인간은 인과로 조건 지어지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공동체의 일부 자비란 고통을 없애 주고, 즐거움을 주는 발고여락(拔苦與樂) 태도

집단간, 국가간의 갈등으로 인해 평화는 항상 요원(遙遠)하다.

불교에서 인간의 운명은 숙명도 우연도 아닌 ‘자업자득(自業自得)’의 원리를 따른다. 자신의 업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말이다. 업(業)이란 범어 카르마(karma) 내지 카르만(karman)의 번역어로 몸과 입, 의지로 짓는 언행(言行)을 뜻한다.

업의 힘은 각자의 삶을 어떤 영역 안에 머물게 하고, 어떤 궤도를 돌며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하게 만든다. ‘정체성’이라고도 번역되는 ‘동일성(아이덴티티, identity)’은 이런 업의 힘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업자득은 언행이 야기한 결과가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내가 전생에 했던 일이 만든 것이고,

다음 생애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만들 것이다.”라는 말은 이런 생각을 잘 요약해서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운명의 현재는 과거의 소산이며, 미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보다 나은 공동체를 위해 자비의 길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자비의 길은 먼저 열핏 양립할 수 없는 욕망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욕계(欲界)는 욕망이 구조화된 세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는

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이 모두 포함 된다.

타자(유정계와 자연계를 포함한)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욕망은 때로는 이기적으로 때로는 이타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욕망의 지향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특히 ‘행위를 하기 위한 의지’나 ‘행위를 하기 위한 욕구’ 등을 의미하는 찬다(chanda)는 가치중립적으로 무엇과 연결되느냐에 따라 선(kusala, 善)하게 진행되기도 하고 불선(akusala, 不善)하게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의욕은

도덕적으로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함의하고 있다.

자비(慈悲)는 불교의 실천이라는 면에 있어서 그 중심 덕목이다. 찬다(chanda)가 자비와 연결되었을 때, 인류운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다.

자비는 자(慈, maitrī, metta; 우정, 친애의 마음)와 비(悲, karuṇā, karuṇa; 불쌍 함 여기는 마음)가 결합된 말로써, 『인왕경소』에 따르면 자비란 고통을 없애 주고, 즐거움을 주는 발고여락(拔苦與樂)의 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자비를 의미하는 팔리어 karu, mett, anukamp 세 어휘들의 의미를 종합하면, ‘자신과 타인에게 이롭지 않은 것과 괴로움을 제거하려는 의도와 행동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게 이로운 것과 행복을 가져오려는 의도와 행동’이라고 정



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념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비라는 말은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자비행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음에 간직되는 ‘의도’로서의 자비까지를 의미하여, 행동에 의한 자비와 감정의 공유에 의한 자비의 두 측면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비는 욕망과 지혜와의 관계를 통해 그 의미가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그릇된 욕망은 업(業) 지향적인 비본래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고, 지혜는 열반 지향적으로 불교가 추구하는 본래적인 삶과 관련되어 있다.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 현상세계의 차별성을 따라 대상에 집착하고 애착하여 업을 짓고 윤회하면서 점점 더 허망분별의 차별성을 증폭시킬 뿐이라면, 깨달음인 지혜는 그러한 망분별과 집착을 버려 윤회의 현상세계를 넘어서고자 한다.

지나친 욕망은 허망한 비본래적인 현상세계에 점점 더 침몰하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 허망성을 자각하여 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잘못된 욕망이 윤회를 낳는다면, 지혜는 윤회고리로부터의 탈출, 해탈을 낳는다.

자비는 그릇된 욕망과 지혜, 비본래적

인 삶과 본래적인 삶, 윤회와 해탈, 그 양극단을 다시 화해시키는 마음이다. 가(假)의 현상세계이지만, 그 안에서 고통받는 유정의 마음은 가(假)가 아니기에, 그 마음의 고통은 진실이기에, 그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것이 보살의 자비심이다. 보살은 욕망의 현상세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세계에서 지혜가 발휘되는 열반의 세계, 정도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이렇듯 자비는 비본래적인 현상세계에서 고통 받는 모든 유정들을 향해 있으며, 그것은 인류공동체가 사는 세상을 정도로 만들기 위한 실천 이념이다.

지금의 인류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개인과 국가들은 복잡한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인류 사회는 언어와 문화, 국적과 인종에 상관 없이, 지구촌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모든 이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는 보편적 선(kusala, 善)인 자비는 인류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해독제가 될 수 있으며, 보다 건강한 인류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실천 이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BTN 불국토상조 는 장례포교사

회원가입 문의: 1577-7675

장엄번 제단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 대성인로왕보살과 극락도사아미타불 장엄번으로 제단 장엄

스님 시다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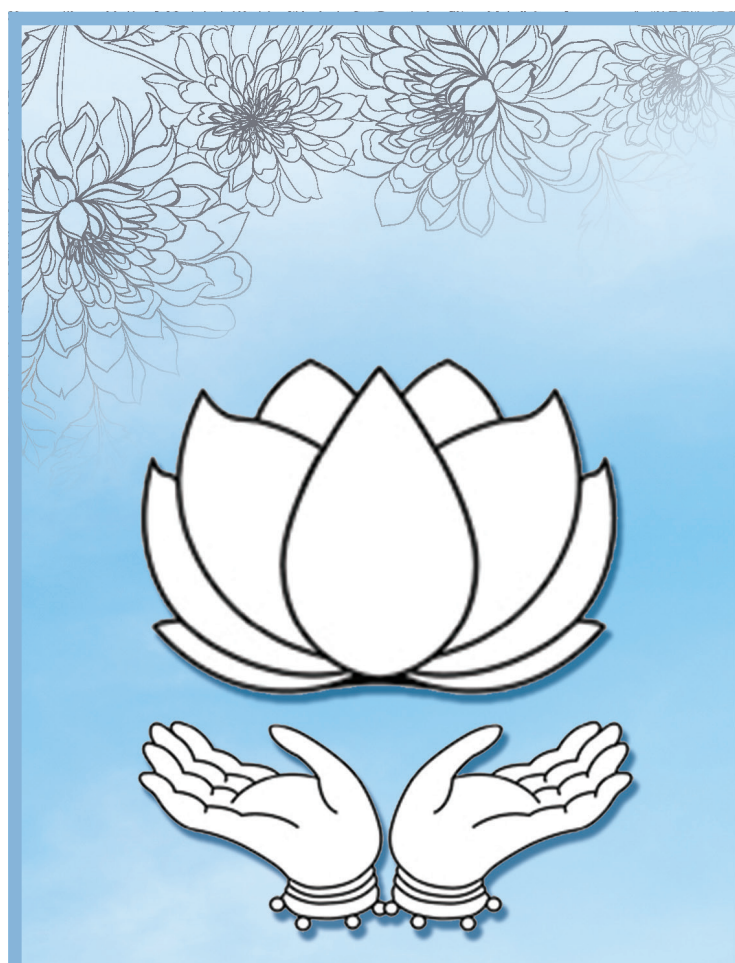
입관 및 성복례를 하는 동안 스님께서 직접 장엄염불로 영가가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모십니다.

지장경 수의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해 지장경이 새겨진 불경수의를 지장보살상 위패를 제공합니다.

불국토상조 “우량업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회계감사를 통해 2018년 6월29일 우량업체 발표. 상조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한 회계지표 상위업체 공개명단에 불국토상조가 포함됨

중요정보 고시사항
 대표이사: 구본일 / 홈페이지: www.btnlife.co.kr /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 선불식 합부거래업 등록번호: 서울-2011-제68호 / 합부거래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약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고객 불입금을 국민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고객환급금의무액 10,286,290,000원 / 상조관련자산 14,001,360,000원 / 공인회계사(삼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불국토상조는 BTN불교TV가 영가의 극락왕생을 인도하기 위해 설립한 불교전문 장례포교사로서 불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장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밀교연재

『밀교문화와 생활』(33)

중생의 마음과 밀교수행 ⑩



법경 정사 (법장원 수석연구원/ 법천사 주교/ 동국대 강사)

중생의 마음이 짐승에 비유되는 경우가 많다. 이심(狸心), 구심(狗心), 가루라심(迦樓羅心), 서심(鼠心), 사자심(獅子心), 휴유심(鳩鷄心), 오심(烏心) 등이 그러한 예다. 모두 짐승과 관련된 마음이다.

이심(狸心)은 살랭이의 마음이다. 즉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마음이다. 구심(狗心)은 개의 마음이다. 현실에 안주하여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는 마음이다. 가루라심(迦樓羅心)은 독수리와 같이 사납게 생긴 상상의 동물 가루라에 비유한 마음인데, 언제나 큰 날개가 있어 날 수 있는 것처럼 혼자서는 헤치지 못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맹수의 새인 가루라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서심(鼠心)은 쥐의 마음이다. 이치에 어긋나더라도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위하는 마음이다. 사자심(獅子心)은 자기가 우월하다고 여기는 마음이다. 휴유심(鳩鷄心)은 수리부엉이와 올빼미와 같은 마음으로, 선법을 들어

도 어두운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 오심(烏心)은 까마귀의 마음이다. 원망하고 험박하는 마음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까마귀에 비유한 것이다.

집승과 같은 마음은 이외에도 독사나 여우 등등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다. 『대일경』에 언급된 중생의 마음 가운데 짐승에 비유된 마음은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7개 정도가 있다.

이심(狸心)

이심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살랭이의 마음이다. 왜 중생의 마음을 살랭이에 비유하는가. 그것은 배은망덕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개는 주인을 알아도 고양이나 살랭이는 주인을 잘 따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개 고양이는 요물이 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집에서 키우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은 반려동물로 사람과 많이 가까워졌지만 키워나도 주인을 알아보지 못

한다는 생각이 아직도 여전하다고 생각된다. 어쨌거나 살랭이를 좋지 않은 마음에 비유하고 있다. 『대일경소』에서 살랭이의 마음을 이렇게 설하고 있다.

『무엇을 이심(狸心-살랭이 마음)이라고 하는가. 서서히 나아가는 법에 따라 뉘는 것을 말한다. 즉 고양이나 살랭이가 짐승이나 새를 사로잡으려고 숨을 죽이며 조용하게 있다가 힘써서 빨리 나아가지 않고, 어느 정도 안에 이르기를 기다린 다음에 잡는 것처럼 사람도 그러하다. 우연히 갖가지 법요를 들었더라도 다만 작심하여 받아들이고 기억하여 지닐 뿐 나아가서 행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기다리는 가운데 좋은 연을 만나면 흥건하게 힘써서 이를 행한다. 또한 고양이나 살랭이를 갖가지 자애로써 길렀을지라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만약 사람이 남으로부터 자비로운 은혜와 좋은 말을 받았을지라도 값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살랭이의 마음이다.』

기회주의적인 사람, 배은망덕한 마음, 계산적인 사람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 같다. 즉 이심(狸心)은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자기에게 유리하면 나서고, 그렇지 않으면 침묵한다. 또 좋으면 삼키고 싫으면 내뱉는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격이다. 이를 다스리는 법은 선법(善法)을 즉시 행하고 항상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대일경소』에서 이렇게 설하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수행자의 참모습 더 높이 나아가려는 의지로 마음을 다스려야

고 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들은 대로 곧장 행하며, 언제나 은덕을 생각하여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살랭이 같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수행자라 하면서 살랭이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 더러 있다.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나 제행이 무상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생을 사는

동안 배은(背恩)하지 말고 배신(背信) 하지도 말자.

구심(狗心)

구심(狗心)은 개의 마음이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쓰였다. 소극적인 마음으로 표현된 것이다. 『대일경소』에서 구심(狗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무엇을 개의 마음[狗心]이라 하는가. 작은 것을 얻고서 기뻐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구심(狗心)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개는 박복한 연(緣)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허열하다 그래서 우연히 거칠고 천한 음식을 조금이라도 얻으면 문득 기뻐서 만족해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에 넘치면 본래 바라는 바가 아닌 것과 같이 이 마음도 역시 그러하다.』

극히 일부분의 선법(善法)을 들었으나 이것이 수행의 전부가 아닌데도 다시 뛰어난 수행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수행하는 사람의 좋지 못한 마음을 개의 마음에 비유했다고 생각된다. 조금 배웠다고 우쭐대는 마음, 조금 안다고 아상과 아만으로 자만과 오만, 교만에 빠진 사람의 마음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정진이 부족한 사람이다. 현실에 안주하고 현 상황에 벗어나지 못하고 나태해진 사람이다. 이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만과 교만에 빠져 있으니 자기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수행자의 참모습이다. 그래서 『대일경소』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다.

『더 높이 나아가려는 의지로써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큰 바다가 적어도 거부하지 않으며, 많아도 넘치지 않는 것처럼 그 마음을 써야 한다.』

앞의 그 마음은 개의 마음이고, 뒤의 마음은 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뜻한다.

정성준의 후기밀교 자유기교가 정성준



인류종교 최후의 도전

나가르주나는 일찍이 세속의 번뇌에 진리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하였다. 유식학과는 마음에 보이는 사물들의 비실재에 의해 공성을 이해한다. 『헤바즈라판트라』의 주석인 『요가라트나말라』에서 '공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물들은 그 존재를 마음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직 마음의 창조물일 뿐이다. 마음은 비실재이며, 외부의 경계상을 착란으로 현현시킨다. 그것은 마치 꿈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인도 후기밀교 가운데 4관정은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에는 끔찍한 성적 기술들

이 보인다. 『헤바즈라판트라』에 '마찬가지로 반야관정도 그렇다. 반야는 모든 사물은 단지 자기 마음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뛰어난 지혜이다. 그 지혜를 부여하는 관정이 반야관정이다.'라고 하였다. 반야의 철저한 지혜만이 이후 의례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기에 반야관정은 인간육체의 실상을 직시하는 다짐의 기도도 이루어져 있다. 반야의 지혜는 공성으로 관조된 사물의 모든 실상의 긍정이다. 『헤바즈라판트라』에는 '구경차제에서 헤바즈라의 몸은 만다라의 근본이다.'라고 하였다. 『헤바즈라판트라』에

서 금강살타의 헤바즈라(Hevajra)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세존은 '헤는 대비를 상징하고 바즈라는 반야를 상징한다. 반야와 방편의 본질이라고 명시한 이 판트라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답하였다. 인간은 부모로부터 태어난다. 탄생의 과정은 산도로부터 나오고 다시 성인의 몸으로

반야의 철저한 지혜가 의례를 이해하는 기초 후기밀교, 미숙한 성의식 타파와 자각의 시대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여 자궁에서 길러낸다. 인간의 몸은 성숙하며 청정한 만다라이다. 『헤바즈라판트라』에는 '32개의 나디(맥관: 생명이 흐르는 통로)들은 보리심의 운반자들과 대략의 중심으로 흐른다. 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개의 나디들 즉, 랄라나, 라사나, 아바두피이다. 랄라나는 반야의 본성을, 라사나는 방편의 본성을 가진다. 이들

사이의 중간인 아바두피는 능취와 소취의 이원성을 떠나있다. 랄라나는 정액의 운반자이고 라사나는 난자의 운반자이다. 아바두피는 반야와 달을 운반한다.'라고 하였다. 인간의 몸 전체는 만다라이며, 여기에서 불필요하게 버려질 것은 없다. 인도후기밀교야말로 인간의 종교

가운데 미숙한 성의식을 타파하고 각성시키려는 자각이 이루어졌던 시대이다. 성적 수치심은 진화되지 못한 인류의식의 사회적 장애이다. 인간사회는 많은 종교가 있으며 그 종교들은 대부분 기원전후의 시대적 환경과 가치관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이전연년이 넘은 지금도 성과 관련한 신앙적 기술이나, 진화론의 부정, 외계생명체의 부정 등은 인류의

보편적 지식과 가치를 훼손하고 인류를 과거의 미숙한 시대로 돌리고 있다.

인류종교의 궁극적 기능은 원시적 무지로의 회귀가 아니라 인도 나란다승원 대학에서 추구한 것처럼 인류의식의 진보와 깨달음이다. 지금은 어떤 새로운 지식의 경계를 여는 것보다 과거 불교교단의 전통이 분실했던 나란다대학과 밀교의 연구에서 더 빠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한국불교는 방대한 중국어 삼장의 바다에 떠다니고 최상승의 선사를 문답에 체한 환자와 같다. 승단은 계율과 혜학을 소홀히 하고 대중은 여러 교양대학의 졸업장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불교에 대해 자신이 없다.

나란다대학은 방대한 삼장을 정리하여 오명처(五明處)를 구성하는 계율과 『구사론』, 『현관장엄론』, 『입중론』, 『논리학』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중심 교과과정에서 제외하였다. 중국불교에서 보이

는 불전문학이나 불요의 소재를 모두 일소하고 요의 법문만을 남겼다. 때문에 화엄학이나 천태학은 동아시아에서는 중요시되지만 궁극적 진리를 다루는 요의법문의 입장에서 교학으로는 오명처, 수습의 방편은 밀교만을 남겨놓았다. 인도밀교나 티벳밀교의 장점은 나란다대학의 전통에 입각해 현교와 밀교의 간략한 교과목을 제시한다. 거시적 시야에서 한국불교는 팔만대장경과 한문경전에 입각한 방대한 중국교학의 파도에 휩쓸렸다가 선불교의 깃목에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협소한 중생구제의 방편에 의해 다시 존립의 위기에 처해있다.

인도불교의 역사적 교훈은 팔만대장경을 추려 교학은 간략하게, 밀교로써 방편은 다양하게 시설함으로써 불교의 교학수행이 쉽도록 한 것이다. 미래 한국불교가 살아남는 궁극의 길은 나란다대학과 밀교의 연구에 달린 것이다.

수계사 교도

S-OIL 현곡주유소



착한가격! 좋은품질! 정품정량!

- 대표 최병철
- 주소 경북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1242-58
- 전화 054-745-5804 / 054-745-3083
- 핸드폰 010-2877-6137

종합 동해중 소식

동해중학교 제 52주년 개교 기념식 거행
근속 교직원 표창, 불교총지종 장학금 전달



1967년 설립되어 올해로 제 52주년을 맞이하는 종합 동해중학교(교장 : 송인근) 개교기념식이 지난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해오름관 강당에서 열렸다. 동해중학교 이사장 인선 정사를 비롯하여, 송인근 교장, 김진화 교감 등 교사와 학생,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학부모회 학부모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학교 연혁 소개 및 내빈

소개, 근속 교직원 표창, 불교총지종 장학금 수여, 이사장 축사 및 교장 기념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사장 인선 정사는 “동해 교육가족 모든 분들의 말은 바 자기책임 충실과 각고의 노력을 해 온 결과,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지역사회에서 인정 받는 명문학교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며 노고를 치하하고, “개교 52주년을 맞



이하여 동해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비로자나 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한다.”고 축사를 대신했다. 송인근 교장은 기념사를 통해 “학교에서 인성교육은 물론 생활지도 내실화 및 기본과 원리에 충실한 학력향상을 위한 학습지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의 탁월한 지도력과 행정직원

분들의 노력이 감사한다.” 전하며,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목표에 용기 있게 도전하는 자만이 보람찬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조언했다.

이밖에도 동해중학교 졸업생 이진복 국회의원은 축전을 통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학교의 발전을 기원했다. 또 박재호 국회의원도 국회 일정으로 함께 하지 못해 서운함을 축전에 담아 소중한 동량을 배출하는 인재양성의 요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근속 교직원 표창을 받은 교사와 불교총지종 장학금 수여자는 다음과 같다. △근속 30년: 교장 송인근, 교사 김연자(진로 진학) △근속 10년: 교사 이지영(보건) 이상 3명 △불교총지종 장학생: 김성민(3학년 5반), 김규현(2학년 1반), 김민수(2학년 4반), 정동혁(1학년 1반) 허명재(1학년 1반) 이상 5명

<동해중=박재원 기자>

그냥과 마냥, 기다려준다는 것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 '짜증'과 '허세'라고 한다. 부모 입장에서 애들이 왜 결박하면 짜증을 내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부모가 죄'라는 생각마저 든다. 하지만 다 이유가 있다. 사춘기 때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성인 수준으로 발달하지만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상대적으로 발달이 더디다. 이 차이가 가장 큰 시기가 바로 사춘기다. 순간순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슬프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하는 등 감정의 기복이 '죽 끓듯' 한데 스스로 조절이 안 된다. 몸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신감도 쑥쑥 올라가지만 마음의 성숙이나 성적 등이 이를 받쳐주지 못해 자신감이 떨어진다. 아이들은 그 격차를 '허세'로 채운다.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며 큰소리치지만 실상은 허세다. 짜증에 지쳐, 허세를 진짜로 믿고 마냥 기다려준 결과는 원망으로 돌아온다. "왜 그때 나를 잡아주지 않았어. 왜 그냥 내버려뒀어?"

3을 겪어봤어도 그건 딸의 입시일 뿐이다. 딸과 아들은 다르다. 달라도 한참 다르다. 오죽했으면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 온 남자라 했겠는가. 딸의 입시를 겪었으니 좀 더 수월하게 아들의 입시를 치를 수 있다는 것 또한 착각이다. 인간은 누구나 처음의 삶을 산다. 결혼을 몇 번 해도, 애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그 결혼과 아이는 별개인 것이다. 겪어봤으니 좀 더 수월한 것이지 그 삶이 그 삶은 아니다. 경험을 '모든'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사춘기 아이를 기다려줘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마냥은 아닌 것 같다. 무언가 약속을 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필요하다. "나, 학원 안 다니고 스스로 공부할래." 이 고마운 말의 함정은 허세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하겠다는 자신감과 학원에 다니기 싫은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 이때 단호하게 허세를 꺾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 지금은 학원을 끊지만 여름방학 후부터 다시 다니도록 하자" 하면서 아이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동시에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아이는 스스로 학원을 그만두었기에 "나 다시 학원에 다녀야요."라는 말을 잘 못한다. 부모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데 '스스로 학원을 그만두었으니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겠지' 하며 마냥 기다린다. 그러다가 방치하는 단계에 이른다. 그때는 아이도, 부모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해진다.

"수능 포기하면 안 돼요?" 수능일 아침, '멘붕'에 빠졌다. 그 말을 하기 훨씬 전부터 아이는 자신감도, 자존감도 바닥에 떨어졌을 텐데, 이를 눈치 채지 못했다. 좀 더 일찍 사태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후회막급이다. 충격도 잠시, '욱'한 감정을 누르고 어르고 달래 수능만은 보라고 설득한다. 짜증에서 허세로, 다시 허세에서 짜증으로 전환됐을 때 '마냥'이 아닌 약간의 '강제'가 개입했어야 한다.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 부모는 그 시기를 놓치고서 후회한다. 엇나가지 않았으니 됐다고, 공부가 다가 아니라고 자위해 보지만 세상 한 귀퉁이가 무너지는 기분은 어쩔 수가 없다. 부모나 아이가 서로 착각하는 것이 있다. 부모가 되면 무엇이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부모는 다 해줄 뿐 아니라 완벽하다는 것. 아니다. 부모도 아이처럼 초짜다. 대학 2학년 딸과 고3 아들을 키워보는 건 처음이다. 딸의 고

<시인 김정수>

산寺 순례를 다녀와서

늦가을 정취에 행복은 덤



동해중학교 3학년 4반 심명성 엄마입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인연으로 동해중학교 반야회에서 좋은 인연을 맺고 이제는 아쉬운 그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복했던 회원님들과의 마지막 산사순례라서 그런지 웬지 마음이 뭉클합니다.

시험을 보러 가는 큰아들과의 동행을 뒤로하고 11월 16일 동해중학교 선생님들과 반야회 회원님들 그리고 졸업하신 회원님들도 참석하신 가운데 가을 가운데로 쑥 들어가 보았습니다. 마치 33년 전 뒤편이 낙엽만 봐도 까르르 웃고 떠들며 그러나 순수했던 학창시절의 수학여행 추억 속으로 다시 걸어 간 듯 익숙하고 편하게 범주사를 향했습니다. 회원들과는 오래된 친구처럼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많이 웃었습니다. 또 하나의 추억을 새기기에 행복은 충분했고, 일주문을 지나 어느새 '세조길'에 올랐습니다.

범주사 돌래길로 '세조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조선 7대왕 세조가 병을 치유하기 위해 속리산을 찾아와서 많은 전설을 남기고 간 곳이라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까요, 흙냄새, 나무냄새,

자연의 향기에 저절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합장을 해보았습니다.

범주사에서는 우뚝 솟아 위엄을 뽐내는 잣나무가 이색적인 풍경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찬란한 청동미륵대불 부처님 앞에서는 저절로 두 손이 모아지며, 어느새 '움 아모 카 살바 다라 사다야 시베 흙' 염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의 아름다운 곡선과 멋들어진 늦가을 정취를 실컷 느끼며 행복은 덤으로 담고,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미소, 반가운 목소리, 추억으로 남은 포토타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행복했던 일정이었습니다. 참석해주신 회원님들과 감사 못 하겠지만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회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늦가을의 어느 날을 저장해봅니다.



동해중 반야회 임화정 회장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10월 21일 ~ 11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개천사	법등	10/22	50,000
개천사	진세형	11/5	30,000
	우인	11/8	10,000
	관성사	법상	10/21
관성사	인선	10/21	20,000
	박길화	11/13	10,000
기로스승	상지화	10/21	10,000
	수중원	10/21	10,000
	밀공정	10/21	10,000
	총지화	10/21	10,000
	법수원	10/21	10,000
	선도원	10/21	10,000
	법지원	10/21	10,000
	일성회	10/21	10,000
	사홍화	10/21	10,000
	안주화	10/21	10,000
동해사	전일심	10/21	10,000
	시각화	10/21	10,000
	해정	10/24	10,000
	법경	10/21	10,000
밀인사	록경	11/10	10,000
	법수연	11/10	10,000
백월사	이혜성	11/12	20,000
	김강미자	10/30	10,000
법천사	법경	10/21	10,000
	덕현	10/21	10,000
법행사	반야심	10/31	10,000
	유승태	11/10	10,000
	박미경	11/19	10,000

범목사	승원	10/21	10,000
범목사	묘원화	10/21	10,000
	김갑선	10/21	10,000
사원명무기명	김사룡	10/25	20,000
	강해란	10/25	10,000
	남영애	11/1	30,000
	박필남	11/15	10,000
	김갑선	11/19	10,000
	이필선	11/20	10,000
수인사	정순득	10/28	10,000
	덕광	10/21	10,000
실지사	보현	10/21	10,000
	조성우	11/4	10,000
	정경자	11/8	10,000
	유승우	11/8	10,000
운천사	이도현	11/8	10,000
	혜봉	11/4	10,000
일원어린이집	정원심	11/4	10,000
	하재희	10/25	50,000
자석사	구미자	10/31	10,000
	도우	11/20	10,000
잠원햇살어린이집	지현	11/20	10,000
	김선희	11/11	50,000
정각사	안한수	11/3	10,000
	변순개	11/5	10,000
정심사	도현	11/11	10,000
	화령	10/21	20,000
지인사	승효제	11/8	10,000
	이지희	10/25	50,000
초록어린이집	손수이	10/25	10,000

원당	11/13	10,000		
총지사	묘심해	11/13	10,000	
	최영아	11/15	10,000	
	박정희	11/16	10,000	
	이수경	11/16	10,000	
	신용도	11/16	10,000	
총지정보	홍수민	11/18	10,000	
	박재원	10/24	30,000	
화음사	포레스타7어린이집	최유정	10/28	50,000
	강정이	11/6	10,000	
	보명심	11/8	10,000	
	강승민	11/11	5,000	
	강승훈	11/11	5,000	
	최영미	11/11	50,000	
	무명씨	11/13	10,000	
	무명씨	11/14	10,000	
	홍곡사	지정	11/8	20,000
	힐스어린이집	곽방은	11/11	50,000

‘2019 올해의 불서 10 및 불교출판문화상’ 선정 12월 18일 시상, 대상에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

대한불교조계종과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선정하는 '2019년 올해의 불서 10 및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강명희 지음 담앤북스 펴냄)이 선정됐다. 불교출판문화협회 사무국은 올해의 불서 10 및 불교출판문화상 수상작을 지난 11월 26일 발표했다.

또 수상작에는 「월인석보, 훈민정음에 날개를 달다」(정진원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과 「송광사 사찰숲」(전영우 지음 모과나무 펴냄)이 선정됐다. 수향번역상은 「열반종요(원효 지음 박태원 옮김 세창출판사 펴냄)」, 붓다북학술상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감수한 「백곡 처능, 조선불교 절폐에 맞서다」(자현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가 받는다.

이밖에 「박범훈의 불교음악여행」(불교신문사 펴냄)과 「버리는 불교가 궁극해」(변택주 지음 권용득 그림 불광출판사 펴냄), 「불교인문주의자의 경전 읽기」(일지스님 지음 어의운하 펴냄), 「영산재(법현스님 지음 운주사 펴냄)」, 「처음 만난 관무량수경」(김호성 지음 동국대출판부 펴냄)도 올해의 불서 10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린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서도 불서가 15종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총류, 철학·심리학·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지리·관광의 10개 부문 8112종을 대상으로 156명이 심사를 진행해 총 709종을 선정했다.

종교부문 불서로는 △구마라집 평전(공민/부키) △기쁨의 세포를 춤추게 하라: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소마 사무량심 명상(정현 재마 스님/불광출판사) △불교의 탄생(미야모토 케이이치/불광출판사) △불교인문주의자의 경전 읽기(일지스님/어의운하) △설법하는 고양이와 부처가 된 로봇(이진경/모과나무)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자현 스님/조계종출판사) △용성 평전(김택근/모과나무) △처음 만난 관무량수경(김호성/동국대출판부) △청암사승가대학 비구니스님들의 좌충우돌 수행이야기(청암사 승가대학 편집실/민족사)의 9종이 선정되었으며, 철학, 문학, 역사지리 분야에서 불교 관련 서적 6편이 선정되었다.

불교와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

운명을 바꾸는 게 가능한가?

예전에 관세음보살 기도처 남해 보리암에 간 적 있습니다. 거기서 20대 초반의 여학생을 만났는데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에 백일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에 살인이 들어있는데, 그 저주받은 운명을 바꾸기 위해 하루에 3천 배씩 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처럼 기도를 하면 과연 운명이 바뀔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 MBC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2019)는 독특한 드라마입니다. (비밀)이라는 만화 속 세상을 다루고 있는데 자신이 만화 속 캐릭터라는 사실을 모르던 등장인물이 자아를 찾고, 자신의 의지로 운명을 바꾸려 노력하는 게 드라마의 주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자아를 찾은 인물은 은단오(김혜윤)라는 여고생입니다. 사립명문고에 다니는 은단오는 갑자기 순간이동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기억이 사라지고, 미래를 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증상을 겪으면서 자신이 만화 속 캐릭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자신은 만화 속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자 주인공이 학교 일진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여주인공을 도와준다가 하는 역할로 자신이 이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분노와 질투를 느낍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자신이 심장병으로 죽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설정값대로라면 은단오는 스리고의 A3 멤버 중 한 명인 백경(이재욱)을 10년 짝사랑하다가 심장병으로 죽어야 합니다. 자아를 가진 은단오는 작가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겠다고 버티지만 자신의 의지로 설정값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체념합니다. 그러다가 자신보다 비중이 약한, 이름조차 없는 엑스트라 13번을 만납니다. 이 소년에게 하루라는 이름을 지어준 은단오는 그와 함께 있을 때 미묘하게 설정값이 바뀌는 걸 확인하면서 어쩌면 하루(로윤)를 통해 설정값을 바꿀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한편 은단오가 자신의 운명을 바꿔줄

것이라고 믿는 13번은 은단오보다도 더 비중 없는 엑스트라입니다. 그는 만화에서 얼굴조차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고 이름조차 없습니다. 물론 대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에게는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정해진 운명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단오는 작가가 지정한 설정값이 있어 운명에 갇혀 있는 반면에 13번 하루는 아무런 설정값도 없기 때문에 운명도 없습니다. 만화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설정입니다. 존재하기는 하지만 작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의지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단오의 운명을 바꿔주기 위해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콘티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화에서 은단오는 죽을 때까지 백경을 짝사랑하지만 백경으로부터 괴롭힘만 당하는 역할이었는데 하루가 등장하면서 에피소드에 변화가 생겨나고, 백경이 은단오를 좋아하게 되는 상황으로 설정값이 바뀌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쩌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이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설정값과 자아라는 문제. 흔히 인생을 연극에 비유합니다. 삶이 연극이고 우리는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 연극배우에 지나지 않으며 이 연극에서 우리의 의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운명론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드라마에서 설정값으로, 모든 역할은 작가가 설정한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삶과 엑스트라의 삶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주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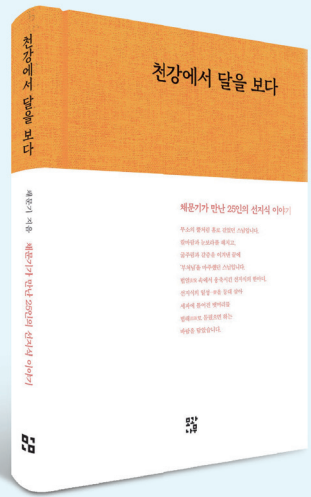
조연의 인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은단오를 비롯한 일부 등장인물은 자기 의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아를 가진 인간은 자신의 배후, 즉 설계자까지 인식하고, 자신을 이룬 세계를 통찰한다는 것입니다. 은단오를 통해서 보면 설정값을 바꾸는 일이 가능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설정



값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중요했습니다. 하늘에서 푹 떨어지듯 하루가 등장했지만, 하루라는 존재가 나타난 배경에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은단오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온 마음을 다 주었을 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운명조차 바꿀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설정값이 신의 역할이라면, 자아는 인간의 영역입니다. 좀 더 나아가 설정값이 기독교적 신관이라면 자아는 중생이 곧 부처라는 불교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적 세계관에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의 창작입니다. 신이 관여하지 않은 일은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교적 세계관에서는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앞에서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다고 했는데 힘든 절을 하면서 운명의 문을 두드린 것은 인간의 의지였으며, 그래서 운명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드라마는 불교적 세계관을 보여주었습니다.



선·교·율 그리고 정진의 힘, 우리 시대 선지식 25인의 할!

천강에서 달을 보다

재문기 지음
332쪽 | 16,000원
140X210mm 양장(하드커버)
발행일 2019년 10월 17일
분야 : 종교 > 불교 > 불교이야기/에세이
출판사 : 모과나무

한번 가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도 사할에 가는 시간을 내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하물며 큰스님과 마주앉아 차 한 잔을 하는 일은? 큰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삶을 돌아보는 일은? 그러한 행운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아닐까. 저자는 이 시대의 큰스님들을 만나 대진 여쭙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그 깊은 뜻을 나누고자 글을 '천강에서 달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2008년부터 법보신문에 기획연재를 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그 기획연재 중 '실천할 때 경은 살아 숨 쉰다'(지현 스님), '이름 없다 해서 향기도 없으랴'(지현 스님), '마음 너머 평화를 향해 걷는다.'(해자 스님)등 25인의 큰스님과 나는 대화를 추리고 다듬어 엮은 것이다.

"하늘의 달은 하나지만, 강 위에 뜬 달은 천 개입니다.

강변만은 아닙니다. 산정 호수에도 천 개의 달이 뜨고, 동네 옆 흐르는 시냇가에도 천 개의 달이 떠 있습니다. 달은 불(佛)이요 자비(慈悲)라고 합니다.

달은 본각(本覺)이요 원각(圓覺)이라고 합니다. 달은 불성(佛性)이요 진여(眞如)라고 합니다. 달은 일물(一物)이요 일심(一心)이라고 합니다. 달은 법계(法界)요 열반(涅槃)이라고 합니다. 달이 가진 '참' 뜻을 품고 싶었습니다."

저자 본명은 채한기. 충남 천안 광덕에서 나고 자랐다. 광덕초, 광풍중, 천안북일고와 청주대를 졸업했다. 1993년 한국불교신문사에 입사했으며 1995년 법보신문사로 자리를 옮겼다. 26년 동안 불교 전문 기자로서의 길을 걸어들었다.

수인사 교도

벌이 만들어준 천연의 황금보약, 직접 뜯 꿀!



꿀
양봉협회 포항지부장이 직접 뜯 꿀

₩ 40,000



화분(비폴렌)
천연꽃가루로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 함유 (냉동보관)

₩ 50,000



봉정밀
· 꿀+프로폴리스+화분+로얄젤리, 벌이 만들어준 종합세트
·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에 탁월함!

₩ 50,000 (500ml)
₩ 200,000 (2000ml)



로얄젤리
여왕벌의 먹이, 만능의 자연식품 (냉동보관)

₩ 50,000



프로폴리스
항균작용, 항산화, 항암효과에 탁월!!

₩ 50,000 (100ml)



프로폴리스 치약
입냄새 제거, 잇몸 튼튼, 충치예방!!

₩ 8,000 (200g)

“조건 없는 깨끗한 배품을 실천하자.” 포항 수인사, ‘2019 김장김치 이웃 나누기’ 보시행



“조건 없는 깨끗한 배품을 실천하라.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기쁨은 항상 거기 있지니라.” 잡아합경에는 보시행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라고 설하고 계신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매월 넷째 주 자성일에 무료 급식소를 열어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수인사(주교: 법일 정사)가 이번에는 ‘김장김치 이웃 나누기’ 행사를 벌였다.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 정사)의 후원으로 수인사가 주관하는 ‘김장김치 이웃 나누기’ 행사는 이번에는 수인사 교도들과 함께 특별히 다문화 가정의 중국인 자원봉사자 6명이 동참한 가운데 지난 11월 23일 수인사에서 진행되었다. 또 건화사 주교 법상 정사와 수

계사 주교 남해 정사도 일손을 도왔다. 이날 담금 김치는 11월 25일 중앙동주민센터에 60박스와 수인사 무료급식자. 반찬배달 급식자에게 90박스, 총 150박스가 전달되었다.

이번 김장을 위해 수인사와 교도들은 1년 동안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이익금을 모아 복지기금을 마련했다. 지난 7월에는 포항 돌장어 축제에 먹거리 장터를 열어 수익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총 비용 600만원이 들어간 이번 김장에 수인사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알뜰히 모은 200만원과 김장 판매 수입금 200만원을 보태어 총 400만원의 기금을 형성하여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다.

법일 정사는 “수인사의 김장 나누기 행사는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해마다 교도들이 자신의 일로 생각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면서 “교도들이 서로 어우러지고, 지역과 소통하며 신심을 높여가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수인사는 꾸준한 지역 봉사 활동으로 우리종단을 포함해 포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불교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릉기계(주) 경남중소기업대상 수상 수출부문서 총지사 교도 조형래 대표

‘2019년도 경남중소기업대상’에서 수출부문서 서릉기계(주)가 수상했다. 서릉기계는 총지사 조혜현 교도의 각자 조형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회사로 조대표는 서울경인지회 신정희 김은숙 회장의 아들이다.

지난 1996년 시작해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경남중소기업대상’은 경남도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남신문, 경남은행이 손잡고 추진하는 도내 중소기업 포상으로, 기술혁신 등 5개 부문 대상, 특별상, 우수 장기 재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금번 시상식은 지난 30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렸다.

양산 산막공단에 위치한 서릉기계는 1989년 1월 설립된 이래 국내 유압유액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고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와 2018년 10월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룹에 납품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 신장률이 높은 기업이다.

아울러 중국에 합작공장을 설립하고 하복성과 강소성에 제조라인을 구축하는 등 2017년 168만 달러를 수출한 데 이어 2018년에는 234만 달러로 증가시켰다.

조형래 대표는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유압기 관련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

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모친 김은숙 회장은 “아들은 내게 전화도 하면서도 율마니반매음을 한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여법하게 회사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자랑스럽다.”며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

한편 서릉기계는 사회봉사와 공헌 그리고 임직원 복지를 위해서도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형래 대표



소통하는 통신원,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통신원

떠나가는 가을 찾아 행복한 나들이 충청전라교구지회, 화음사, 운천사, 만다라합창단

겨울로 향해 달리는 계절의 아쉬움을 달래고 스승과 교도간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 전국 사원 곳곳에서 가을 나들이에 나섰다.

진주 화음사(주교: 우인 정사)는 지난 10월 31일 전남 장성 일대에서 가을맞이에 흠뻑 젖었다. 푸른 가을 하늘과 장성호의 맑은 물, 꽃들이 만개한 장성은 참여한 스승과 교도들의 신심을 달래주었다. 화음사 강점이 통신원은 “나들이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스승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함께 참석한 교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가을 향기가 물씬 베어오는 추억을 안고 왔습니다.”며 소감을 전했다.

전라북도 완주 종남산 송광사 일대에서 지난 11월 12일 관불행사를 가진 충청전라교구지회는 스승과 신정회 회원들이 다함께 나섰다. 교구장 지정 정사님(흥곡사 주교)을 비롯하여, 각 사원 스승들과 신정회 민순보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송광사를 참배하고 대야 수목원도 둘러보았다. 만보사 정덕순 통신원은 “이날 모임에서는 충청전라교구 신정회 현 민순보 회장과 배정임 총무가 내내도도도 연인하기로 하였다.”고 소식을 보냈다.

이에 앞서 창원 운천사(주교: 정원심 전수)도 스승과 교도들이 함께 지난 10월 23일 지리산과 내장산 그리고 고창 선운사에서 가을을 보냈다. 만다라합창단(단장: 이상록)은 대전 백월사 지난 10월 27일 공주 감사와 공남지를 돌아보며 신심을 다졌다.



어울림소식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창원 운천사 안정숙 교도
교육청 사무관 진급시험 합격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부산 총지사 원당 정사,
묘심해 전수 장녀 김윤정 양
2019년 12월 14일(토) 오후 3시
메리츠타워 지하1층 아모리스 강남

부산 정각사
이상록 교도 장남 이철희 군
11월 16일 결혼, 축하드립니다.

총지스케치

김흥균 작가
총지사 교도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월초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중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린보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중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향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안민-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예』의한 진언 '음흉야호사로서 국태안민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구,경북교구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고동길 6-4 (054)761-2466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서울,경기교구					
관성사	030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대경길36-19 (054)745-5207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벽홍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부산,경남교구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삼정동)	(032)528-2742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백월사	35335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09-1 (도마동)	(042)527-5470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상로 82-1 301호 (초량동) (051)468-7164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시랑길 109 (영선동17가) (051)416-9835	
해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안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효교로78번길 17 (보수동17가) (051)254-5134	
흥곡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7가)	(063)224-4358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부산,경남교구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명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부산 포교의 중심지 법성사

절찬리 분양중

법성빌딩(가칭)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지하철 1호선(부산역) 3분거리
- 부산항바다, 남항대교 조망
- 인근 관광명소 다수
- 인근 우수학교
(부산고등학교, 부산중학교)
- 안전한 치안
(초량지구대1분거리)
- 편리한 생활권
(초량시장1분거리, 대형마트1분거리,
롯데백화점 지하철로 2정거장)
- 입주민전용 헬스장, 세탁실
- 프리미엄급 옵션 제공
한샘키친시스템
LG휘센스마트천장형에어컨
친환경동화자연마루시공
실크벽지
불박이장
LG공기정화시스템(전열교환기)
내진설계
- 옥상하늘정원

아파트 | 23세대 (2Type)

오피스텔 | 34호 (3Type)

법성빌딩

지번주소
부산시 동구 초량동 422-2

도로명주소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59-1



문의 051-468-7164